

1. 개요

독일(프로이센)의 철학자.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대륙의 합리주의와 영국의 경험주의를 종합하여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받으며,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미학 등 분야를 막론하고 서양 철학의 전 분야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칸트가 남긴 저작 중 3대 비판서인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이 유명하다.

사망한 지 200년이 흐른 지금도 근현대 철학의 중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칸트의 영향력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근대 철학에 국한되지 않으며, 현대 철학에서도 칸트의 영향력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칸트의 윤리학은 밀의 윤리학과 더불어 현대 윤리학의 중요한 두 축 중 하나이다.

2. 생애

2-1. 초년기

칸트는 1724년 4월 22일 토요일 아침 다섯 시에 태어났다. 태어난 날이 옛 프로이센력으로 성명축일[7]이었으므로, 칸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원래 이 이름이 지닌 히브리어의 의미는 "신이 그와 함께 있다"인데, 이 뜻이 경건한 부모의 마음에 들었다. 칸트 역시 나이가 들어서도 이 세례명을 자랑스럽게 여긴 걸 보면, 그에게 아주 알맞은 이름이었던 듯하다.[8]

아버지 요한 게오르크 칸트는 마구 제조업자들의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수공업자[9]였으며, 말이나 수레, 마차, 썰매 등에 쓰이는 가죽끈이나 가죽띠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돈을 벌었다. 그는 1683년 메멜에서 태어났으며, 젊은 시절 큰 도시인 쾨니히스베르크로 이주했다. 거기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할 만큼 수입을 얻었던 그는 서른세 살이던 1715년 11월 13일, 뉘른베르크에서 쾨니히스베르크로 이주해온 다른 마구 제조업자의 열여덟 살 딸 안나 레기나 로이터와 결혼했다.[10]

둘은 경건주의에 따라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칸트도 부모님의 이러한 모습에 큰 영향을 받았다. 칸트는 대여섯 살이 되어 프로이센의 교회법과 학교법의 규정대로 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자, 시의 번두리에 인접한 병원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그곳에는 오직 선생님 한 분만이 계셨다. 선생님은 그곳 교회의 합창단 지휘자이자 오르간 연주자이기도 했다. 학급도 오직 하나였다. 모든 학생들이 토지 개량 기술에 능숙하도록 배웠고, 읽기와 쓰기도 배웠으며, 계산하는 법 등도 조금은 배웠다. 무엇보다 그들은 기독교의 근거에 대해 공부했

고, 개신교의 정신에 입각해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을 받았다.[11]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왔던 칸트는 그 지역의 목사이자 교육자였던 프란츠 알베르트 술츠를 만나게 된다. 어머니는 아들이 지닌 통찰력과 이해력에 대해 자랑하곤 했는데, 술츠는 칸트의 재능을 알아보고는 어머니에게 칸트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설득했다. 어머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버지 또한 적은 수입일지라도 더 나은 학교 교육을 위해 기꺼이 돈을 내놓을 준비를 했다. 그렇게 해서 여덟 살의 칸트는 1732년 부활절 무렵 술츠가 있는 콜레기움 프리데리키아눔으로 왔다. 일 년 뒤에 술츠는 그곳 교장이 되었으며, 가까이에서 칸트의 성장을 지켜보며 영향을 줄 것이다. 이제 칸트는 이 엄격한 "경건주의 학교"에서 열여섯 살이 될 때까지 교육을 받는다. 칸트는 일주일의 6일을 아침 일곱 시부터 오후 네 시까지 휴식 없이 보내는 노예 같은 생활을 견뎌야 했으나 그런 와중에도 라틴어 수업만큼은 좋아하고 열심히 들었다.[12] [13]

한편, 아버지의 사업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마구 제조업자와 가죽꾼 제조업자 사이에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말의 안장을 생산하는 것이 힘들어져서 더욱 가난해졌다. 더군다나 1737년 12월 18일 '독성을 지닌 급성류머티즘발열'로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후, 홀로 남은 아버지의 어깨 위에 부양과 교육이라는 모든 짐이 지워졌다.[14] [15]

2-2. 청년기

칸트는 1740년에 쾨니히스베르크 대학[16]에 합격했다.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개신교 국가에 필요한 교사와 설교자 혹은 목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1544년에 세워진 동프로이센의 유일한 대학이었다. 칸트는 이곳에 새로 등록하면서 어떠한 장학금도 신청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경제적 독립을 원했고, 국가로부터 빚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는 자기 스스로 학비를 충당하려고 했다. 그보다 나은 처지의 친구들이 그에게 커피와 빵, 옷 등을 대주었다. 또한 칸트의 외숙 리히터는 제화업을 하는 궁한 형편임에도 조카를 많이 도와주었다. 칸트는 절친인 요한 하인리히 블뢰머와 오랫동안 조출한 방에서 함께 살았다. 칸트는 그와 함께 가끔씩 당구를 치기도 했는데, 당구 실력이 수준급이라서 내기 당구를 해서 생활비를 벌기도 했다고 전해진다.[17]

칸트는 대학교에서 신학, 자연과학, 고등수학을 청강했다. 1년 뒤 칸트는 마르틴 크누첸(Martin Knutzen)을 만나게 되었다. 크누첸은 쾨니히스베르크 대학에서 학문 일반의 유럽적인 개념을 대표하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논리적이며 철학적인 성찰, 수학적인 증명과 박물학적

인 탐구는 칸트라는 젊은 학생에게 커다란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크누첸의 강의와 토론 연습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열한 살 위인 교수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다.[18] 크누첸은 칸트에게 1687년에 출간된 아이작 뉴턴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빌려주었는데, 이 책은 칸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책은 "아마도 일찍이 등장한, 개별적으로 저술된 물리학 저작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칸트 자신이 떠올렸던 계획과 일치하는 것이었다.[19] 또한 크누첸의 서재에서 칸트는 '사무엘 클라크와 라이프니츠 사이에 오간 서신'을 읽을 수 있었다. 거기에는 '자연 철학과 종교의 원리'를 주제로, 라이프니츠와 뉴턴을 등에 얹은 사무엘 클라크의 논쟁이 쓰여져 있었다. 주목할 점은, 나중에 칸트가 해결점을 찾았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논의되었다는 사실이다. 칸트는 라이프니츠와 뉴턴/클라크 사이에 논쟁이 되었던 '힘'의 정당한 측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20]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아버지가 점점 더 허약해져가는 그 시기에 칸트는 자신의 첫번째 책 『살아 있는 힘의 올바른 측정에 관한 사유들』을 써 내려갔다. 1746년, 평가를 받기 위해 이 책을 철학부에 내놓았을 때 아버지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직후였다.[21]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칸트는 남은 유산을 정리했는데, 남은 것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그는 장남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넘겨받았다. 학생이던 칸트는 더 이상 쾨니히스베르크 대학의 강의 요목을 좇을 수 없었고 나중에는 강의 자체를 거의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가난한 칸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가정교사가 되는 길 외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22] 학업을 중단한 뒤, 1748년 칸트는 먼저 인스터부르크와 굼비넨 사이에 있는 유드첸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다니엘 안더슈 목사 댁의 일을 보았다. 3년 뒤에는 쾨니히스베르크의 남쪽에 있는 그로스-아른스도르프에서 훔젠 집안의 젊은이들을 가르쳤다. 1754년에 쾨니히스베르크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는 6년을 그곳에서 보냈다.[23]

가정교사 생활을 하던 6년 동안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몰혀 지내지는 않았다. 전원적인 고독 속에서 안정된 몇 년을 그는 집중적으로 자연 연구에 사용했다. 칸트는 물리학·지리학·천문학을 비롯해 여러 분야의 학문적 기록들을 남겨놓았다. 칸트의 자연철학적 연구들은 바로 이 근면함으로 인해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날 때면 그는 논쟁의 소지가 다분한 자연과학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24] 인쇄한 지 3년 뒤의 일이지만, 1749년 여름에 드디어 그의 『살아 있는 힘의 올바른 측정에 관한 사유들』이 서점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칸트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건본 한 부를 문화계 잡지사에서 일하는 동료에게 보냈다. 자신의 첫 저술에 대한 서평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동봉한 편지에는 "살아 있는 힘의 올바른 측정을 통해, 잠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도에 최후의 결정을 일깨우려는" 독일 자연철학이라는 암시가 곁들여져 있다. 같은 날에 칸트는 저명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레온하르트 오일러에게도 이 책을 보냈다.[25] 동봉한 편지의 내용에는 불확실한 자기 평가가 곁

합된 젊은 철학자의 자부심이 엿보인다. 그러나 살아 있는 힘(vis viva)에 관한 그의 형이상학적 꿈이 적혀져 있는 칸트의 이 첫번째 글은 출판상으로는 아무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26]

1754년 칸트는 쾨니히스베르크로 돌아와 학문적인 언론인으로서 일했다. 1년 뒤, 『자연사와 천체 이론』[27]을 썼으며, 1755년 4월 17일에 자신의 석사논문인 「불에 관하여」를 제출하고 5월 13일에 시험을 치렀다. 9월 27일에는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인 「형이상학적 인식의 제1명제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내놓았다. 쾨니히스베르크 대학에서 강사 자격을 얻고, 동양학 교수인 게오르크 다비드 키프케 교수 저택에서 첫 강의를 했다.

1756년 4월 8일, 서른두번째 생일을 두 주 남겨놓고 칸트는 "가장 위대하고 막강한 왕"인 프리드리히 2세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다.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공석으로 있는 자리에 교수직 신청을 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원래 어느 누구보다도 자연철학에 대한 칸트의 관심을 일깨우고 지도했던 스승 마르틴 크누츠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1751년 노환으로 죽자 공석으로 남은 것이었다. 이제 그의 제자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에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것은 정교수 자리는 아니었고, 보수도 신통치 않으면서 강의를 많이 해야 하는 특별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에게 이 직위는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었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 쾨니히스베르크의 사강사라는 가시밭길에서 벗어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베를린에 있는 대학 당국은 경비 절약을 이유로 교수직을 채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칸트는 교수가 되기 전까지, 강사의 신분으로 강단이라는 모루 뒤에 앉아 매일같이 "같은 강의의 무거운 망치를 균일한 박자로" 내려치며 14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28] [29] [30]

2-3. 중년기

1770년 3월 16일, 마흔여섯 살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강사 생활을 하고 있던 칸트는 비밀 국가예산 장관이자 육군 장관인 폰 뤼어스트 운트 쿠퍼베르크 남작에게 긴박한 편지 한 통을 쓴다. 그는 이 편지를 통해 막 공석이 된 교수직에 응모한다. 그러니까 하루 전날, 최고재판소의 사제이자 수학 교수인 랑한젠이 지루한 병환 끝에 죽은 것이다. 이미 칸트는 1756년에도 교수직을 얻으려 노력했으나 허사였고, 또 2년 뒤의 교수 지원에서도 외면당했다. 칸트가 처한 상황에는 극적인 데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대학 강사로서의 보수는 한푼도 받지 못했지만, 그의 강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던데다 수강생들이 대개 강의료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궁핍한 삶에 익숙해 있었으며, 어쨌든 사강사로서 칸트는 빚을 지지 않고도 서적상인 칸터의 집에 있는 두 방의 방값을 지불할 수 있었다. 50년대 말부터는 전직 군인 출신인 마르틴 람페[31]를 하인으로 고용하고 식당에서 매일같이 좋은 식사로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었고, 1766년 2월부터는 왕립 궁정도서관의 부사서로서 약간의 돈도 벌었는데,

여기서 그는 자기 연구를 위해 책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기쁨까지 덤으로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칸트는 교수단의 정회원으로서가 아니라 무보수의 사강사로서 벌써 15년 동안 활동한 셈이었다. 그동안 칸트는 기진맥진할 때까지 주당 평균 20시간씩 가르쳤고, 또 부지런히 저술 활동을 해왔다. 그는 이제 젊은 학창시절 눈앞에 그렸던 학자 생활을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졌다.[32] [33]

그런데 칸트의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가 단 하나 있었다. 칸트는 세계에 대한 이론적 지식 체계에 흥미가 떨어졌기 때문에 윤리 교수직을 맡기를 바라고 있었는데,[34] 공석이 된 자리가 수학 교수 자리였던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겸손하게 장관에게 일종의 교환 제안을 했다. 사람들이 그 공석의 교수직을 고인의 사위인 크리스티아니에게 맡기면 어떨까? 카를 안드레아스 크리스티아니는 윤리 교수이기는 하지만, 훌륭한 수학 전문가이기도 하다. 칸트 자신에게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된다면 "나(칸트)는 윤리 교수직을 지원하면서, 귀하(폰 튀어스트 장관)께서 내려주실 존귀한 서언을 겸손히 희망하며 내 본래의 숙명을 따를 생각"이기 때문이다.[35]

하지만 윤리 교수직 임명에서 칸트는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 대신 국왕인 프리드리히 2세는 "우리는 임마누엘 칸트 선생을 ... 논리학과 형이상학의 정교수로 그지없이 자비롭게 임명하고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칙령을 내렸다. 그렇게 해서 칸트는 마침내 교수가 되었지만 이는 절반의 성공이나 다름없었다. 왜냐하면 칸트가 자신의 삶에서 바랐던 행복, 즉 윤리와 도덕이라는 실천적 분야에서 자신의 숙명을 따를 수 있는 행복은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봉쇄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 곤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칸트는 10년을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그 책, 즉 『순수이성비판』의 탄생은 의무감에서 비롯된 곤경의 해결책인 셈이다.[36]

원하지 않았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강의와 반복 수업을 수행하며 논리학과 형이상학의 교수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특히 청중들에게 형이상학·자연지리학·인간학에 대한 그의 강의는 매우 흥미로웠다. 그의 강의는 "유머와 분위기로 흥을 더했다." 1762년부터 1764년까지 칸트 밑에서 공부한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가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의 "열려 있으면서 사색으로 다듬어진 이마는 깨뜨릴 수 없는 명량함과 즐거움의 자리였고, 가장 풍부한 사유를 지닌 대화는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으며, 유머와 즐거운 분위기는 그의 뜻대로 되었다." 그의 강의는 더욱 유명해져서, 학생들이 필사한 칸트의 강의록은 학계에 널리 퍼졌다. 그렇지만 칸트는 이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1778년 8월 28일에 헤르츠에게 전했듯이, 특히 자신의 형이상학 강의와 관련하여 "강의록을 통해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37] [38]

칸트는 자신의 임명을 처음부터 미심쩍게 평했던 교수 동료들과는 거의 사교적인 접촉을 갖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사소한 경쟁과 술책에 관계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또한 그들의 고지식한 "학자적 자만과 현학"에 대해서도 기꺼이 비웃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괴팍한 외톨이인 것은 아니었다. 칸트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으며, 그들과 함께 잡담하고 농담하며 논쟁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칸트가 "식탁 모임"이라고 부르는 그 모임에는 학자와 지성인 뿐만 아니라 상인이나 가정주부들도 있었다. 이들 모두는 칸트와 함께한 모임에서 즐거움을 느꼈다. 칸트는 장난꾸러기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생동감 넘치는 큰 웃음을 재치있게 이끌어내곤 했다. 식사를 한 뒤 칸트는 대개 네덜란드 나무숲이나 나중에 "철학자의 길"로 알려진 강변길을 걸었다. 신선한 공기와 자유로운 운동 속에서 좋은 생각이 생긴다는 것이 칸트의 지론이었다.[39] [40] [41]

2.4. 10년의 연구 결과, 『순수이성비판』[편집]

10년 간의 연구 결과인 그 원고는 1780년 가을에야 완성되었다. 칸트는 최근 칸터[42]의 책방을 넘겨받았던 고트리프 뢰레히트 하르통에게 그것을 출판해달라며 넘겨주었다. 그러나 그는 출판을 거절했다. 이러한 추상적인 형이상학 논문으로는 돈이 벌리기엔커녕 잃기만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칸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다. 그때 하만[43]이 칸트를 도우러 왔다. 그는 리가의 출판업자이자 서적상인 하르트크노흐와의 접촉을 중재했는데, 이 사람은 원고에 흥미를 보이면서 심지어 논문의 대가로 칸트에게 약간의 사례까지 지불하겠다고 흔쾌히 동의했다. 오랫동안 미루어진 그 일은 이렇게 해서 마침내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쳤다. 1781년 5월, 라이프치히의 부활절 장에서 리가의 출판인 요한 프리드리히 하르트크노흐에 의해 쾨니히스베르크 교수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초판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44]

그러나 판매 부수는 매우 미미했다. 아무도 칸트의 생각을 좇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가장 친한 친구들마저도 머리를 흔들 정도였다. 친구들이 보기에는 『순수이성비판』은 신비스럽고 암호 같은 것이었다. 히펠은 너무 어려워서 이 책에서 무언가를 찾아낸다고 어떤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했고, 멘델스존은 건본만 보았는데도 가슴을 쥐며 매우 답답해서 기운이 빠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블뢰머는 이 책을 읽으면 전제되어야 할 단어가 너무 많아서 한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모르는 단어를 헤아리는 손가락을 모두 접게 된다고 불평했다. 그나마 칸트의 생각을 제대로 검토한 하만조차도 세번째 읽는데 막혔다면서 네번째 읽기에서는 이해되기를 소망할 정도였다. 결국 하만이 나서서 칸트에게 철학의 문외한도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요약본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을 받아들여 1783년 초, 칸트는 리가에 있는 하르트크노흐의 집에서 『학으로 등장할 수 있는 미래의 모든 형이상학에 대한 서문』, 즉 『프롤레고메나』를 출판한다. 이 책에서 그는 더 광범위한 독자들을 위해 『순수이

성비판』의 핵심 생각들과 그 철학적 배경을 되도록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45] [46] [47]

뉴턴은 어떤 일이나 사건에 관계없이 스스로 한결같이 흐르는 절대적·현실적 시간을 가정했고, 또 움직이지 않고 항상 똑같이 머물며 마찬가지로 "자신 밖의 어떤 것과도 관계 없이 존재하는" 절대적·현실적 공간을 가정한다. 칸트는 이와 반대로 뉴턴의 절대주의를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공간과 시간을 감성의 순수 형식 조건으로 선언했다. 그는 시공을 주관화하고 그것들의 객관적 성격을 거부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공간과 시간 속의 대상을 감성적으로 직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이러한 형식 조건들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이제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형식 조건을 재구성하는 일을 순수 수학의 과제로 선언했다.[48]

즉, 인식이 대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우리의 인식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현상에 우리 스스로가 질서와 규칙성을 부여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할 수조차 없다면, 우리 심성의 본성이 그것들을 처음부터 거기에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오성 자체가 자연법칙의 원천이다." "오성은 자신의 법칙을 자연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그것을 규정한다." 그것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이름을 들어 말했던 칸트의 대담한 혁명이다.[49]

하지만 그를 도덕적으로 자극했던 실천철학의 세 가지 큰 문제들은 이 길 위에서 답변될 수 없었다. 인간 본래의 것을 형성하는 불멸의 영혼이 있는가? 자연법칙으로 결정된 세계 속에서 인간 의지의 자유는 어떠한가? 그리고 신의 현존은 시령자의 상상 속에서만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환상 이상인가? 이론이성의 형이상학이 이 문제를 자연철학적 지식의 영역 밖으로 경계지웠다고 해서 그것의 매력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론이성의 형이상학은 또한 동시에 그것에 의해 자기 자신의 경계 설정을 명시한다. 그것은 "아마도 본래 실천적인 것만이 관계해야 할" 차원에 도달하지 못한다. 『순수이성비판』의 말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이성의 순수한 사용의 최후 목적"을 칸트는 도덕형이상학과 실천이성의 비판에서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음에 주어질 그의 큰 과제일 것이다.[50]

1783년 베를린에서 계몽을 위한 투쟁 단체인, 은밀한 "수요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생각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그리고 독자적 사유와 시민정치적 자유를 향한 적극적인 참여, 더 불어 이것들에 결합된 공공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어두운 감정 철학, 비이성의 감옥, 종교적 독단, 교회의 강요, 광신과 미신 등에 대항했다. "그들은 교대로 돌아가며 규칙적으로 개인 주택에서 모임을 가졌고, 우정 어린 생각들을 교류하면서 서로서로 정신을 계몽했으며, 이를 통해 여러 종류의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모임의 결과는 『베

를린 월간지』에 실렸는데, 칸트는 1796년까지 총 15편의 글을 기고했다.[51] [52]

이러한 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계몽의 동지들은 동시에 그들의 반대자에 대한 전선을 구축했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전선은 자신들의 감정에 지배받고 자신의 갈채를 신적인 계시로 간주하는 모든 종류의 광신자들을 향해 구축되었다. 이 광신자들은 모든 사유의 자유를 반대하는 자, 특히 문화·정치적인 반대자로 간주되어 논쟁적으로 반박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상 그들의 고유한 방식 때문에도 위협을 받고 있던 예수회와 비밀 구교를 향해서도 계몽 단체의 반박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토론과 강연 그리고 제한적으로 돌려보던 문서 등은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었다.[53]

『베를린 월간지』에서 계몽이란 무엇인가 하는 토론이 시작된 직접적인 계기는 전통적인 교회결혼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었다. 교회에서 치르는 혼례성사는 번잡한 허례허식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결혼은 신성하므로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풍기문란과 도덕적 타락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똑같이 '계몽'의 이름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에 철너는 '계몽'의 이름으로 야기되는 혼란을 비판하면서 무엇보다 계몽에 대한 분명한 개념 규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계몽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계몽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이 문제에 답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도 찾지 못했다!"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철너의 물음에 대해 칸트는 몇 개월 뒤 이렇게 응수했다.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숙이란 다른 사람이 지도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러한 미성숙이 지성의 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지 않고서는 지성을 사용할 결단력과 용기가 없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과감히 알려고 하라! (Sapere aude!) 자기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계몽의 좌우명이다." [54]

즉, 자기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스스로 생각한다는 원칙이 계몽이다." [55]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란, 사람들에게 공론장에서 "자신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누군가가 독서계의 모든 공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학자의 입장으로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장교가 직무수행 중에 상관의 명령의 합당함이나 유익함에 관해 공공연히 따지려 든다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지만 학자의 입장에서 병역 의무의 결함에 대해 논평하고 독자층에게 판단을 호소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선 안 될 것이라는 애

기다.[56] 여기서 칸트는 심지어 종교나 군주라도 공론장에서의 사상의 자유만큼은 억제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칸트는 1762년에 루소의 저술을 읽기 시작했다. 『에밀 또는 교육에 관하여』를 읽기 시작했을 때, 그는 몸이 얼어붙어 며칠 동안 규칙적인 산책을 하지 못했다. 그는 루소의 자연적인 인간상, 즉 가면을 쓰지 않고 살아가도록 교육된 인간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청년 시절의 칸트는 뉴턴으로부터 자연과학적인 세계 관찰의 원칙들을 진지하게 수용했다. 그는 『자연사와 천체 이론』에서 그 첫번째 정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제 루소로부터 그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배웠다. 무엇보다도 루소의 역설은 인간 영혼 속에 감추어진 어떤 흔적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1765년에 칸트는 전해에 출판된 『미와 숭고의 감정에 관한 고찰』의 여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했다. "오직 이것(물리적 세계 인식)만이 인간의 명예를 세울 수 있다고 믿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무지의 천민들을 멸시했다." [57]

1770년 무렵이 되자, 칸트는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즉, 자신의 "도덕형이상학"이 "시초의 근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태도나 감정에 대한 가능한 고찰 영역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도덕형이상학이 즐겁고 교훈적인 발견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개별적인 주관의 의욕 혹은 행위의 주관적 원리에 불과한 준칙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도덕형이상학자로서 칸트는 대단히 명확하고 순수하게 "도덕 법칙", 즉 도덕성 일반의 최고 원리를 생각했다. 이 원리 안에서 경험적인 현상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58]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완성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연기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1770년 3월 31일에 칸트는 내각의 명예 따라 논리학 및 형이상학 교수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도덕적 전문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를 기다린 것은 다른 과제들이었다. 10년 동안 그는 『순수 이성비판』에 몰두했으며, 실천철학은 여기에서 단지 암시로만 드러났을 뿐이다. 『순수 이성비판』에서는 경험의 형이상학과 변증법적인 가상의 논리학이 전면에서 부각되었다. 순수 이론이 성과의 대결이 종결된 뒤에야 칸트는 비로소 실천이성, 즉 자신의 본래 사명에 전진할 수 있었다.[59]

1785년 4월 8일, 드디어 그의 『도덕형이상학정초』가 세상에 나타났다. 도덕적 견지에서 실제 "선택"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칸트는 문제시되는 것이 세계의 사태가 아니라 주체의 능력임을 전제한다. 윤리적 견지에서 볼 때, 도덕적 의식 일반에 대해 능력 있는 주체만이 선택하거나 악할 수 있다. 그런데 선의 근원이 되는 주체적 혹은 주관적 능력이란 어떤 것인가? 인간의 정신적 능력인가? 칸트는 아니라고 답한다. 지능, 오성, 재치, 또는 학문

적 지식은 해롭거나 악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질인가? 칸트는 이것 역시 아니라고 답한다. 우리는 용기와 인내 그리고 감탄의 기질을 가지고 선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악하게도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운인가? 이것 또한 아니다. 권력이나 재산이나 인정 또는 건강 같은 행운을 통해 어떠한 일이 좋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어떠한 도덕적 혹은 인륜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격인가?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존재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인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격이 그 자체 스스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아 있는가?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정초』는 단순한 규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 밖에서도, 어떤 제한 없이 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한 의지 뿐이다." 규정된 또는 보편적으로 수행된 법칙, 행복감, 공리적인 유용성, 외적인 자산들과 내적인 재질들, 이 모든 것은 결코 도덕성의 최상의 원리에 구성적인 것들이 아니다. 오로지 "의지"만이 윤리적 가치를 지닌다. 칸트는 도덕성의 합리적 근거를 "신적인 전능한 의지"에서 끌어내는 대신 전적으로 인간 의지의 자유로부터 이끌어내고 있다. 칸트는 1788년에 쓴 『실천이성비판』의 종결부에서도 "내 안의 도덕법칙"을 그 어떤 다른 근거에서 칭송하지 않는다.[60] [61]

그러나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정초』는 경험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을 더 이상 결합할 수 없는 세계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도덕의 영역은 이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칸트의 도덕성의 이념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이의이다. 물론, 칸트도 윤리학 역시 경험적 부분을 지닌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한다. 이것은 나중에 "실천적 인간학"으로 특징지어지며, 여기서는 감성, 쾌와 불쾌의 감정, 본능과 욕망, 그리고 한 인물의 성격도 자신의 고유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칸트는 경험에서 추론된 것이 아닌 이성에서 추론되는 순수한 도덕 철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간주했다. 그것이 단지 도덕형이상학일 뿐이라해도, 도덕적 법칙을 순수하고 참된 본질 속에서 추구하려는 시도는 도덕성이 퇴색한 시대에 특히 가치 있는 일로 여겨졌다.[62] [63]

프로이센의 새로운 군주가 된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는 1788년 7월 3일, 계몽군주국의 장관인 프라이헤어 폰 제드리츠를 파면하고, 그 자리에 신학자인 요한 크리스토프 뵐너를 임명했다. 그리고는 그를 "성직부의 수장"이라고 명명했다. 이에 따라 1788년 12월 19일에 프로이센 국가의 새 검열 선포가 시행되었다. 국가 검열을 통해 왕과 성직자단에 의해 선포된 종교와 국가의 원칙들에 위배되는 일은 제한을 받았다. 출판의 자유가 철저하게 제한되었다.[64]

1789년 6월 17일 프랑스 혁명이 터지자, 검열은 더욱 엄격해졌다. 내각의 규정에 따라 1791년 10월 19일부터 월간지와 계간지 그리고 여타의 시대지들도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베를린 월간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이 무렵 칸트는 『베를린 월간지』에 종교철학에

관한 논문을 연속적으로 투고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칸트는 선한 삶의 활동적인 심성은 종교적 확신에 대해 우위를 지닌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검열관들의 심기에 거슬렸던 것이다.[65] 『인간의 지배에 대한 선한 원리와 악한 원리의 대립에 대하여』는 출판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긴장된 상황에서 칸트는 『베를린 월간지』에 기고하고자 계획했던, 네 편의 원고를 독자적인 책으로 출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쾰히스베르크 대학의 신학부가 그러한 종류의 철학부 논문을 검열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 그는 우회로로 그 논문을 예나 대학의 철학부에 제출했다. 예나 대학의 철학부는 프로이센 밖에서 그 논문을 출판하도록 승인했고, 이렇게 해서 1793년 부활절에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가 출간되었다.[66]

칸트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적 자유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토지 소유자의 농노는 아직 자유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또한 일반 사람들은 아직 종교의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 뒤에서는, 자유는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먼저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의 시도는 조야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령과 배려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수반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시도가 아닌 다른 이성을 통해서 성숙할 방법은 없다." [67] 국가의 검열 조치가 칸트의 어조를 더욱 날카롭게 한 것이 분명했다. 법적이고 종교적인 권위자의 절대명령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의 자유에 대한 신조는 더욱 급진화되었다. 국가에서나 집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항상 되풀이되는 지배적인 관료적 선언에 반기를 들며 칸트는 이의를 제기했다. 자유는 칸트에게 일생 동안의 소망이었다. 그는 프랑스 혁명에 열광했으며 이 소망과 정치적인 시대사를 결합시켰다. 칸트는 자유와 평등 및 자주에 대한 자신의 이념을 자유·평등·박애라는 혁명의 외침 속에서 다시금 인식했다. 그는 이제 세계사적인 전망으로 이행가능하도록 자신의 비판철학을 정치화했다. 많은 친지와 친구들은 그의 이러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68] [69]

그러나 그 책이 1년 동안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자 칸트는 더 이상 검열관들을 피할 수 없었다. 1794년 10월 1일 내각은 "왕의 칙령"을 칸트에게 선포했고, 이것은 칸트에게 10월 12일에 전달되었다. "자비로운 왕의 특별 명령에 따라" 뵐너는 칸트가 앞으로는 더 이상 종교적인 사태에서 책임질 일을 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왕과 뵐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만을 가지고 칸트가 자신의 철학을 "성서와 기독교의 주된 교리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데 잘못 사용"하는가를 관찰했다. 그들이 보기에 칸트의 저작은 무책임한 짓이고, "우리과 당신에게 잘 알려진 조국의 의도"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경고 뒤에 노골적인 위협이 뒤따랐다. "우리는 존경스러운 당신의 가장 확신에 찬 책임을 요구하고, 우리의 커다란 불쾌감을 모면하기를 당신에게 기대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그와 같은 일에 책임질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당

신의 의무에 합당하게 당신의 능력과 재질을 우리 조국의 계획이 갈수록 더 많이 실현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당신은 계속된 반항으로 확실히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70]

왕의 칙령이 떨어진 이후로 칸트는 종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간행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억눌렀던 자신의 자유를 정치적 논평을 함으로써 풀어냈다. 그는 이제 국가의 질서와 존귀한 법에 직접 손대기 시작했다. 1795년 4월 5일, 바젤에서 맺어진 프랑스와 프로이센 사이의 단독 강화에 영감을 얻어, 그는 영구평화를 향한 그의 철학적인 기획을 써 내려갔다. 『영구평화론』은 그해 말엽에 모습을 드러냈고, 출판상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71]

그리고 마침내 1797년 11월 10일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가 죽고, 새롭게 즉위한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는 1798년 3월 뉘른 장관을 면직했다. 새로운 왕은 계몽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았다. 이로써 칸트는 다시금 교회와 국가 그리고 종교와 법에 대해 자신의 비판적인 태도를 자유롭게 공공연하게 표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칸트는 빌헬름 3세의 새롭게 계몽된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72]

2-4. 말년

일생을 두고 보면, 칸트는 심한 병에는 걸리지 않은 셈이었다. 단 하루도 병으로 인해 침대에 누워 본 적이 없었다는 말이다. 그 점에 대해 칸트는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그것을 스스로 처방한 섭생의 근본 원칙을 따른 자신의 의지의 효과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병을 낫기 위한 치료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천적이고 철학적인 기술이었으며, 생명력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뿐 아니라 건강상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좋게 그리고 길게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73]

칸트는 물론 허약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삶의 나머지 생애 동안 그를 생산적이라도 만드는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해졌다. 오랜 시간 동안 확고한 습관이 된 바 같이, 하인 람페가 매일 아침 5시 15분전에 깨우고 주인이 일어날 때까지 침실에서 기다린다. 그는 옷을 입고 그 위에 붉은 비단 띠를 한 노란색의 침실가운을 걸쳤고 머리에는 나이트캡을 썼는데, 삼각형의 작은 모자를 그 위에 고정시켰다. 그런 후에 연구하는 방으로 가서 두 잔의 온화한 꽃잎 차를 마시고, 점토로 된 파이프에 담배 한 대를 핀다. 다섯 시 정각에 그는 책상에 앉는다. 이제 그는 오전 내내 연구할 시간을 갖는다.[74]

칸트는 분명 약하게 태어났다. 그런데도 이토록 장수한 자신의 건강을 그는 자랑스러워 했다.[75] 그러나 40년을 교육에 종사하며 통틀어 268개의 연속강의를 했었고 1796년 7월 23일 마지막으로 강단아래에 서 있는 그의 몸은 더 이상 강의할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 노령의 그는 약해진 몸 때문에 넘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웃었으며, 몸이 가볍기 때문에 심하게 넘어지지 않았다고 익살을 떨기도 했다. 또한 피로감 때문에 의자에서 잠드는 횟수가 늘어났다. 의자 밑으로 굴러 떨어져 가끔씩 그런 채로 누워 있기도 했다.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누군가가 도와주러 올 때까지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 아침에 책을 읽을 때나 글을 쓸 때면 머리를 가누지 못해 촛불 아래로 머리가 내려가 때때로 "무명으로 된 나이트캡에 불이 붙어 머리위에 환한 불꽃이 타올랐던" 경우가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놀라지 않고 맨손으로 나이트캡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고는 불을 껐다.[76]

1803년 10월 8일에 칸트는 그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예사롭지 않게 아팠다. 그의 아버지처럼 뇌졸중이 일어났던 것이다. 물론 그는 다시 회복되었으나, 그러한 타격은 그를 점점 쇠약하게 했다. 곧이어 그는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고 거의 무엇인가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이상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태연하고 침착했으며 평온해 보였다. 그러던 1804년 2월 12일 밤에 그는 의식은 있었지만 거의 마비된 듯 보였기 때문에, 말년에 그를 따르며 수발을 도와주던 제자 바치안스키[77]가 그의 걸을 지켰다. 새벽 1시경에 칸트가 목마르다는 표정을 짓자, 바치안스키는 그에게 포도주와 물을 섞어 조금 달게 만든 음료를 마시도록 갖다 주었다. 조금 기운을 돋우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맛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에겐 충분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그의 삶과 노고를 돌이켜보고 있었을런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물론 불명료하게 들리긴 했지만 이해할 수 있게끔, "그것으로 좋다 (Es ist gut)" 라고 속삭였다. 밤이 지나가고 해가 떠올랐을 때 칸트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11시였다.[78]

장례식 날 쾨니히스베르크 시 전체가 휴무에 들어가 모든 상점들은 문을 닫았다. 수천 명이 운구 행렬의 뒤를 따르고 시내의 모든 교회가 같은 시간에 조종을 울리는 등 위대한 철학자의 사망을 애도했다. 칸트는 쾨니히스베르크 대학이 마련한 쾨니히스베르크 대성당의 묘지에 묻혔다.

3. 사상

칸트의 사상 체계는 흔히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인식론: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윤리학: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종교철학: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 중 첫째 질문인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첫째 질문은 자신이 문제삼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 인간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는 어디까지 알 수 있으며, 또한 어떤 것은 알 수 없는지를 논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순수 이성 비판』은 첫째 질문을 본격적으로 논의면서, 인간 이성의 능력이 지닌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 점에서 『순수 이성 비판』은 인간의 인식과 앎에 대한 논의를 첫째 질문을 통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이성주의(합리주의) 철학의 전통에서 이성인 그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채, 신, 영혼불멸, 자유와 같은 무제약자들을 함부로 추구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과 같은 무제약자들은 인간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아득히 넘어서는 초감성적인 대상들로, 유한한 인간 이성은 자신의 한계로 인해 결코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오직 자연 인과성의 지배를 받는 감성적인 경험적 대상들밖에 없으며,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서 초감성적인 대상들을 인식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독단적인 dogmatisch 것일 수밖에 없다.

둘째 질문인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는 도덕적 물음으로, 『도덕형이상학 정초』와 『실천 이성 비판』에서 다루어진다. 둘째 물음에 대한 답변, 즉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결국 도덕적 행동이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도덕적 행동은 무엇인가? 바로 도덕법칙에 따르고자 하는 행위 원리를 받아들여 행동하는 것이다. 이처럼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정초』와 『실천 이성 비판』 전반부 「순수 실천이성의 분석론」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물음인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는 칸트의 여러 저서에서 복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칸트의 저서에서 이 셋째 물음이 최초로 등장한 저서는 『순수 이성 비판』으로,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의 후반부인 「방법론」 중에서도 「순수 실천이성의 규준」장에서 이 물음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79] 『순수 이성 비판』에 따르면, 우리가 둘째 물음에 따라 도덕성을 확보하는 일은 우리가 "행복해도 좋을 자격"을 갖추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도덕적 행위 원리를 받아들여 행복해도 좋을 자격을 가지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도덕성에 상응하는 정도만큼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행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다고 보지 않고, 희망의 대상이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칸트는 전통적인 행복주의 윤리학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전통적인 행복주의 윤리학은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될 경우 현세의 삶에서 도덕적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즉 행복주의와는 달리 칸트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자연법칙이 지배하는 감성계에서는 결코 도덕성에 상응하는 행복이 도출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지 행복해도 좋을 자격, 그리고 그 자격에 행복이 따라오리라는 희망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칸트에 따르면, 도덕성에 상응하는 행복은 결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지만, 행복의 분배에 개입하는 전능한 신을 가정한다면 각자의 도덕성에 상응하는 정도만큼 그 행복을 희망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도덕에 상응하는 행복이 보장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신의 현존을 요청해야만 한다. 이 점에서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라는 물음은 신의 현존을 요청하는 요청이론Postulatslehre으로 이행하게 되며, 이는 칸트의 고유한 종교철학 이론인 도덕신학Moralstheologie을 구성하는 주요한 체계가 된다. 그러므로 셋째 물음은 종교적 물음과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순수 이성 비판』에서 제시된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라는 물음은 결국 행복할 자격과 행복이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최고선이라는 도덕적 이상의 문제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물음은 최고선의 문제를 다룬 여러 저서들에서 간접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실천 이성 비판』의 후반부인 「변증론」에서는 영혼불멸과 신의 현존의 요청을 통해 최고선의 실현에 대한 희망으로 나타나며,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는 근본악의 문제와 그 원인인 악의 원리에 대항하는 윤리적 공동체구현 내지는 최고선에 대한 희망으로, 또 『판단력비판』에서는 자연과 자유의 통일을 통해 이 지상에서 실현될 수 있을 자연의 궁극목적이자 목적들의 나라인 최고선에 대한 희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4. 업적

근대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철학 연구가 칸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철학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공리주의에서 후기 칸트학파의 사상에 이르는 혁신과 밀접하게 연관된 채로 철학과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 모두에서 유지되었다.

경험론[82]과 합리론[83]이 치고받고 싸우던 18세기 유럽 철학계를 평정한 거인. 실제로 칸트 이전 세대에는 경험론과 합리론의 구분이 없었다. 같은 경험주의론자인 여러 영국 철학자조차 자신들이 같은 학파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을 플라톤 학파 혹은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라고 지칭하였다.

이러한 학파의 구분은 칸트 이후, 정확히 말해서는 칸트에 대한 연구가 극에 달하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와서야 정립되었다. 바꿔 말하면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이라는 책 하나로 17-18세기 존재하던 모든 영국, 대륙철학자들을 단 2개의 학파로 양립시키고 그들이 대립하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한 후 이를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풀어낸 대단한 인물. 근대철학은 칸트 전과 후로 나뉜다는 얘기가 칸트를 모든 강들이 흘러 들었다가 다시 갈라져 나가는 호수로 비유한 것도 다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의미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도 칸트에서부터 시작됐다.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론적 윤리란 무엇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체계적인 인식론과 실천 이성 구분을 통해 그 구조를 펼쳐보였다. 칸트가 인식론뿐만 아니라 근대 윤리학의 시작을 알렸다고 봐도 될 듯. 게다가 판단력 비판을 통해 인간의 미학 인식까지 구분과 과정을 설명 시도했다. 칸트가 인류 지식 세계에 공헌한 바는 이렇듯 어마어마하다. 저명한 철학자 R.사하트는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을 불완전하게 이해해도 현대 철학 이해에 큰 지장은 없지만, 칸트를 불완전하게 이해하면 현대 철학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했을 정도.

그 스스로 "데이비드 흄의 책을 읽고 미망에서 깨어났다"고 말하기도 했다.[84] 자칫 어렵게 들리는 이 말은 그냥 흄과 칸트 모두 오직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철학의 탐구 범위를 좁히려는 데에 동의한다는 말이고, 이 점에서 그는 경험론자와 닮았다. 그래서 칸트의 이 고백은 "경험적인 것, 혹은 수학적 것이 아닌 모든 책은 불태워 버리라"는 흄의 말과 상통한다. (기존의 형이상학이 완전히 쓸모없다는 데에서 칸트는 흄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래서 현대 영미형이상학에서 흄은 형이상학에 대한 회의주의자로 자주 다루어지지만 칸트는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는 이와 같은 경험적인 범위 내로 철학의 탐구 범위를 좁히면서도 흄의 탐구 방식을 반드시 따라가지는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칸트는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할 원칙이 무엇일지를 탐구했다. 흄의 경험론은 모든 경험이 공유하는 어떤 일반적인 성질, 이를테면 어떤 대상이든지 그것에 대한 나의 관념(idea)은 나의 인상(impression)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주목하는 반면, 칸트는 모든 경험이 가져야만 할 어떤 형식에 주목한다. 이처럼 그는 경험론적인 틀 내에서 합리론적인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탐구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굳이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경험론과 합리론자의 종합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흄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칸트의 대응에 동의했는지 알 길이 없다. 칸트는 흄을 알았지만 흄은 칸트를 몰랐는데 흄이 세상을 떠났을 때가 1776년으로 『순수이성비판』이 출판되려면 5년이 더 지나야 했기 때문이다.

5. 영향

독일의 칸트 연구자인 오토프리트 회페는 『임마누엘 칸트』에서 칸트의 영향을 다음 네 가지로 나누었다.

독일 관념론: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 프리드리히 빌헬름 요제프 셸링,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로 대표된다. 피히테는 칸트의 철학을 칭송하며, 자신의 철학을 칸트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를 더욱 보완시키는 철학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말년의 칸트 본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의 철학은 그 자체로 완성된 체계라고 반박하였다. 이후 셸링과 훔덜린(휘페리온 저자)이 칸트의 '주관적' 관념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소 낭만주의적인 관념론을 전개하였고, 이후 셸링과 훔덜린의 친구였던 헤겔이 이들을 다시 비판하며 이른바 '객관적' 관념론을 주장하게 된다.

신칸트주의: 1870년부터 1920년까지 약 반세기 동안 유럽의 강단철학을 지배한 사조이다. 에른스트 카시러, 헤르만 코헨, 하인리히 리케르트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 주목해 과학주의적 철학을 전개하였다.

현상학과 실존주의: 에드문트 후설, 막스 셸러, 칼 야스퍼스, 마르틴 하이데거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주로 칸트가 주장한 '초월성(transzendental)' 개념을 요리조리 재해석해서 자신들 고유의 사상에 도입하는 방식으로 칸트를 계승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 영미권에서는 스트로슨, 셸라스 등의 분석철학 계열과 또 다시 이들을 비판한 로티가 칸트를 계승하거나 비판한 학자들이다. 또한 존 롤스와 같은 영미권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자들은 칸트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독일의 위르겐 하버마스 또한 롤스와 함께 칸트의 윤리학과 정치철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가장 저명한 철학자로 뽑힌다.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들은 계몽주의의 정점인 칸트에 우호적일 리가 없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칸트의 『판단력 비판』과 같은 텍스트에서 이질성, 다원성 등의 키워드를 뽑아내기도 했다. 가령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는 칸트 미학의 숭고를 자신의 이질성의 철학을 옹호하는 데 활용한다.

한국에서는 '독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철학과 = 칸트학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이 시절 철학과 교수들은 20%의 고대 그리스 철학과 50%의 칸트철학, 30%의 기타를 공부했고 학생들은 99%의 마르크스주의[85]와 1%의 기타를 공부했다는 농담도 있다. 영미 철학, 프랑스 철학의 균형잡기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21세기 이후에도 한국 철학계에서 가장 깊게 연구되는 인물은 여전히 칸트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보통 철학과 학생들이 넘어야 하는 가장 큰 벽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칸트.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고교 교육 과정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현행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도 칸트는 매우 비중 있게 다루지고 있다. 아무래도 고교 과정에서는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를 대립항으로 간주하여 교육 및 학습하고 있는데, 칸트는 전자의 대표 주자를 넘어서 거의 유일한 주자로 여겨질 정도이다.[86] 2007 개정 교육 과정 이후에는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칸트 윤리학의 현대적 재해석 및 보완까지 교과서에 공식으로 다루고 있다. 로스라는 20세기 윤리학자가 내세운 조건부적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칸트 윤리의 절대주의적 도덕 원리를 다소 유연한 형태로 변형한 것이다. 물론 중등 교육 수준에선 그 심오한 깊이를 모두 담을 수 없다. 실제 수능 기출문제에서도 도덕적 딜레마가 나올 때 결과 등에 상관하지 말고 실천 이성적 명령에 따르라는 선택지밖에 나오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태도가 자신의 대원칙이 어떻게 구체적인 맥락에 적용될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했던 칸트의 입장을 얼마나 대변하는지는 미지수이다.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등장하신다. 칸트의 의무론이 단독으로 맨 처음 등장하며, 환경윤리에서는 독특한 인간중심주의의 대표자로 나오고, 평화와 윤리에서는 국제연합에 기초한 영원한 평화 구상이 나온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응보주의 형벌론에 기초한 사형제 찬성론 및 예술에 있어서의 칸트식 도덕주의까지 다루진다. 결국 윤리와 사상이든 생활과 윤리든 윤리 계열 교과를 수능에서 택하는 사람들에게 칸트는 넘어서 할 산 중 하나인 셈. 칸트는 정언명법을 토대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 법칙과 의무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했다.

현대 철학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쟁에서도 칸트는 곧잘 나온다. 비록 형이상학에서는 흄이 주로 다루어지지만 실천철학에서 그의 입장은 계속되는 떡밥이다. 당장 큼직한 주제만 들어 보더라도 결과주의 vs 비결과주의, 양립 불가능론 vs 양립 가능론, 공리주의 vs 자유주의, 경향성 vs 실천적 추론과정(혹은 이성)과 같은 모든 주제에서 우측의 입장들은 칸트의 영향을 받은 입장들이다.

또한 현대에 들어서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칸트가 『영원한 평화』라는 말년 저작에서 제시한 '세계 시민'이라는 정치적, 윤리적 주제의 선구자이다. 인터넷을 비롯한 미디어가 발달하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한 나라의 윤리적 문제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시민이라는 주제가 생겨났는데, 이게 나쁘게 말하면 쓸데없는 오지랖이다. 자기 나라의 문제도 다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 이미 윤리적인 문제를 한 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랑 전혀 상관없는 위안부 문제를 미국 의회에서 다루는 데 왜 그리 큰 관심을 가지는지 생각해 보자.[87]

결국 이러한 윤리적 목소리가 독재 국가들이 맨날 하는 말처럼 내정 간섭이 아니라 정당한 윤리적 비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현대 윤리학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칸트는 인터넷은커녕 유선 전신이 갓 발명되던 시기인 18세기에 이런 문제를 주목하고 현대적인 세계 시민의 개념을 처음으로 꺼낸다.[88] 그러면서 칸트는 '이성의 공적 사용'을 주장하면서 세계 시민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결국 현대에 세계 시민이라는 주제를 윤리학적으로 다룰 때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칸트가 되었다.

또한 막스 베버의 사회학, 장 피아제의 심리학, 노 촘스키의 언어학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사회, 행동 및 신체 과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칸트의 수학 및 인공적 사전 지식에 대한 연구는 또한 이론 물리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지적 발달에 일찌감치 영향을 준 것으로 인용되었다. 칸트적 패러다임 전환의 철저함 때문에 그의 영향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저작을 언급하거나 자신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상가들에게까지 미치게 됐다.

6. 명언

내가 그것들을 더욱 자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항상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외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97]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98]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99]

너의 인격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도, 너는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하라.[100]

스스로를 별레로 만드는 사람은 나중에 짓밟혀도 불평할 수 없다.[101]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102]

인류라는 구부러진 목재에서 아직 한번도 곧은 것이 만들어진 적은 없었다.[103]

영원한 평화는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점차 해결되어 그 목표에 끊임없이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하나의 과제이다.[104]

어떻게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105]

외래어는 가난이나 태만을 드러낸다.[106]

해야 하므로, 할 수 있다.[107]

7. 주요 저서

제목

발간 연도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감정에 관한 고찰[108]

Beobachtungen über das Gefühl des Schönen und Erhabenen

1764년

순수이성비판

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년

미래의 모든 형이상학을 위한 서설[109]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1783년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1784년

도덕(윤리)형이상학 정초[110]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111]

1785년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112]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Naturwissenschaft

1786년

실천이성비판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1788년

판단력비판[113]

Kritik der Urteilskraft

1790년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114]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

1793년

영원한 평화[115]

Zum ewigen Frieden

1795년

도덕(윤리)형이상학[116]

Metaphysik der Sitten

1797년

실용적 관점에서의 인간학[117]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1798년

학부들의 다툼[118]

Der Streit der Fakultäten

1798년

교육학

Über Pädagogik

1803년